

새 책가방 메고 학교 가던 때  
《아, 야, 어, 여》 배워주시고  
더하기 덜기 배워주신  
우리 선생님, 다정하신 선생님

3학년이 되어서 또다시  
우리 담임선생님 되여주셨으니  
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 
그런데...

그 다음날부터 내내  
학교는 못 가고  
집에서 지내는 나날  
보고싶은 동무들, 그리운 선생님

그러던 어느날  
선생님은 우리에게  
재미나고 유쾌한 영상  
보내주셨지요  
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 
공놀이하시는 선생님의 힘찬 모습  
너도 나도 영상너머 선생님과 함께  
즐겁게 공 치며 놀았어요

다음날은  
재미나는 돌가보놀이도 하고  
흰나비가 알 낳을  
양배추화분도 보여주셨지요

그 다음날은 교실에서  
일본어교과서도 함께 읽었어요  
그 다음날은 또  
선생님따라 체조도 했어요  
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 
선생님의 모습 보며  
노래도 부르고 함께 웃고  
식물종자도 심어보고...

우리 선생님은  
언제나 함께 계셔요  
선생님이 계시기에  
우리모두 함께 있어요  
-사랑하는 3학년동무들!  
날마다 힘있게 불러주시는  
우리 선생님 계시니  
집에 있어도 학교만 같아요

우리모두 방실 웃으며  
학교 가는 날엔  
동무들이랑 선생님이랑  
손잡고 웃고싶어요